

Raonatti 9th Thailand team

WE ARE

Final story



March





O.T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생기다.

Sao-hin YMCA의 책임자이신 P'di로부터 앞으로 5개월간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일정들을 전달 받았고,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라는 의미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태국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다
태국에서 새롭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다



3월 7일,

한국을 출발해 새로운 보금자리인 태국 싼캄캉에 도착했습니다. Hot한 날씨 만큼이나 Hot한 환영을 해주셨고,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은지
Plu (쁘라)
: 물고기



검도가
Nam (남)
: 물



안혜인
Kung (꿍)
: 새우



김동훈
Doi (더이)
: 산





DAY CAMP

약 2주간
아이들과
어울리기 연습





즐거움 게임시간




다양한 활동

우리가 만난 사람들

광 선생님과 데이캠프의 아이들
(파파, 파이똥, 최우단, 주니아, 돈, 또, 쇼쿤, 문선, MK...)

DAY CAMP

아이들과 만나서 한국어수업, 놀이활동, 종이접기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달 후, 학교에 들어가기 전 연습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임했습니다. 태국 아이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였고, 선생님과 친한 언니,오빠 역할의 사이에서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WORK CAMP DAY-1

[Work camp :
KOBE Y와 Chiang mai Y의
주최로 양국의 youth 친구들이
모여 지구에 대해 고민하며,
직접 자원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3일간 진행한
고베Y, 치앙마이Y의
30번째 대학생 워크캠프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첫 날은
일본 친구들, 태국
친구들, 라오스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낯설었지만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환경 및 기후, 에너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오힌 YMCA 에너지 교육

에너지와 환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오힌 YMCA에 방문하여
대체 에너지, 기후-환경 문제 등 350PPM에 관한 교육을 받고,
직접 대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간편한 요리도 만들어봤습니다.



WELCOME PARTY FOR WORK CAMP

저녁식사와 함께 진행된
Welcome party!
하루동안 같이 활동해서인지
처음 서로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어색하지 않았고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며,
각 나라의 다양한 공연들을 보며
서로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SAVE THE EARTH

에너지 교육 후,
모두가 함께 페인팅 캠페인을 했습니다.
'지구는 아름다워' 라는 주제를
각 나라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환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그레 Y 일본 친구들,
태국 youth Y 친구들,
라오스 관계자 분들, 피차, 피뎡 등...

슬럼가 방문 [아이들과 친해지기]

두 번째 날에는
쓰레기 줍기 교육을 위하여 치앙마이 근처에 있는
슬럼가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슬럼가로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만나
환경 교육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힘들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을 만나보니 너무나 밝고,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핸드 페인팅
캠페인 슬로건 만들기



WORK CAMP DAY-2



분리수거 교육

플라스틱/유리/페트/종이
4가지 분리수거통을 아이들에게 소개하며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들을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집중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슬럼가 방문

교육이 끝난 후, 슬럼가에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슬럼가에는 큰 담벼락이 있었는데, 이 담벼락
너머에는 크고 좋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펼쳐진 큰 격차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안타까웠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잠간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을에 있는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WORK CAMP DAY - 3



치앙마이 탐방

태국을 여행하기 위해서 워크캠프 친구들과 치앙마이에서 가장 유명한 수탉 절과 치앙마이 역사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탐방하면서 치앙마이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더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시간이 되자 너무 아쉬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람팡에 가다! Asian Peace Library



5일간 홈스테이를 하게 된 람팡.

첫 홈스테이에 부담도 컸지만, 저희에게 Asian Peace Library 일손을 돕는 일이 주된 할 일이었습니다. 전문 공사 업체를 통하지 않고, 마을 분들이 서로 힘을 모아 짓는 다는게 놀라웠고, 건축부터 페인트 작업까지 즐겁게 임하시는 모습에서 협력의 큰 의미를 배웠습니다.

또한 함께 청소 작업, 샌딩 작업과 페인트 작업을 하며, 서로 힘들 땀 같이 쉬기도 하고, 또 같이 힘내서 일을 하며 서로 더 돈독해질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람팡의 Organic

람팡에서는 화남산 고층을 중심으로 오기너 작물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햇살과 물을 주며 어머니들이 정성껏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태양열 전기를 사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해 물을 끌어다 쓰며, 바이오 가스를 사용하는 모습들이 저희가 배워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수업

3일 동안 저녁 7시에 학교에 모여 아이들과 90분 정도 한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마을에는 공감반세나 라온아띠가 몇 번 다녀가서 그런지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싼감팜의 아이들과는 멀리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에 저희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수업을 매개로 일할 때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HOMESTAY



더리와 피통네 가족

수줍음 많은 소년들이 있던 P tob네 가족과 함께한 5일이 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놀고 일하며 보내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어스젠가 아들 2형제가 아들 3형제로 바뀔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퍼, 메 모두 더리에겐 태국에서 얻은 새로운 가족이고 새로운 인연이며 그곳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어갑니다.

남과 메깨우 가족

성태우 운전사인 퍼깨우와 올가닉 팜을 가꾸는 메깨우 가족과 함께 산 5일 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대화하고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험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 뿌라와 메라 가족

공과 뿌라는 메라(MEE-RA)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메라는 데이캠프 때 만났던 아이-바이띠어-의 할머니입니다. 8기 정용택 단원이 지냈던 집이었고, 메라의 가족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 분들의 사람에 대한 마음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라는 공과 뿌라에게 진짜 할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 마음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헤어짐의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일이라는 시간동안 람팡에서 홈스테이를 했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2달 동안 항상 붙어있다가 처음으로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새롭기도 했고, 팀원이 보고싶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그 분들이 주시는 정을 느낄 수 있었고, 헤어질 때 흘리시는 눈물에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에 2달동안 하게 될 홈스테이를 미리 연습하는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NO
ALCOHOL
รณรงค์งดเหล้าในวันขึ้นปีใหม่
รณรงค์งดเหล้าในวันขึ้นปีใหม่

Hotel 11



April

WELCOME TO CHIANG RAI :)



4월 3일, 한 달동안 지내던 Sankhampeang을 떠나 치앙마이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치앙라이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을 지내면서 경이 많이 들었던 곳을 떠나니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한 달을 보낼 생각을 하니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습니다. 치앙라이에 도착하자 이 곳 staff분들께서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주셨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저희를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left Lip & Palate



처음으로 Cleft Lip&Palate 환자들을 만난 날.
치앙라이에서 저희의 주된 일은 구순구개열 아이들을 돕는 일이였습니다.
사실 구순구개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직접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만나 환자들의 상태도 확인하고, 구순구개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찾기 힘든 구순구개열 환자들이 이 곳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OVERBROOK이라는 개인 병원의 도움으로 태국 뿐
아니라, 인근의 버마, 라오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Home Visit

수술 전후의 아이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시간으로 메자이, 메수어이, 메짠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힘든 환자들이나, 고산 지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후속치료를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집에 갔을 때는 막상 저희가 하는 일 보다는 그저 멀뚱멀뚱 환자들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와서 우리가 왜 가는 걸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계속해서 다니다보니 방문 그 자체로도 환자들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먼길과 시간을 다니며 일일이 아이들을 만나는 YMCA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귀여운 남매,
쇼동과 수파난





Overbrook Hospital / Chiangrai Hospital

CLP 아이들을 위한 가정방문에 이어서 두 곳의 병원도 방문했습니다. 한 곳은 사립, 한 곳은 공립 병원으로 두 곳 모두 수술 후의 아이들의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참여한 스피치 테라피는 수술 후의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치료입니다. 담당 의사 분이 직접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발음과 어휘 구사를 교정해주는 과정으로 수술 후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치료사가 없으면 치료를 하지 못하는 체제이기에 진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SPEECH CAMP



스피치캠프는 1박 2일 동안 의사 선생님, 간호사, 테라피스트들이 와서 1:1로 아이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캠프입니다. 먼 곳에서

하루 동안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Home visit 때에 만났던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치료받는 아이들 외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는 종이접기, 게임, 한국어 수업을 준비해 여느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수업도 하고, 같이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씩 본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금새 친해져서 저희를 잘 따랐고 저희도 즐겁게 임했던것 같습니다.

Fund Raising [4/17, 4/26, 4/27, 5/3]



한뼌 한뼌 엮은
Misanga



우리끼리 연습해본 첫 fund raising (in Chiang Mai)

처음 모금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고민 끝에 '순수 제작하는 정성과 담겨진 의미', 두 가지 모두 잘 어울리는 '미산가'라는 실팔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감미로운 노래와 기타연습도! 송고란 기간 동안 치앙마이에 머물며 모금활동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고란 마지막 날에 저희의 첫 모금활동을 펼쳤습니다. 영어도 태국어도 안되서 모두 어버버 했지만 손짓, 발짓, 표정으로 열심히 설명하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 덕분에 경험과 모금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Fund Raising



치앙마이에 이어서 매짬과 치앙라이 Night bazaar에서도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북적북적한 야시장에서 들리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의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활기찬 외침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였고, 2번째라 그런지 말도 쉽게 나왔고 다가가기 수월했습니다. 수술 받은 아이들, staff들과 함께 노래와 두둑 해져가는 모금 상자에 힘든 것도 잊은 채 즐겁게 모금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은 돈이 모여서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CLP 영상 제작



Overbrook Hospital에 CLP관련 영상을 틀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는 피랏의 요청으로 CLP를 주제로 한 짧은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지 고민이 많았으나, 회의를 거쳐 누구나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림을 직접 그리고, 한 컷 한 컷 그림들을 움직여 가며 촬영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처음 해보는 스톱모션 영상 제작에 아무 생각없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촬영을 했으나 조명이 사진마다 달라 결국 재촬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똑같은 촬영에 짜증도 났지만 막상 다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특히 치앙라이 스텝분들도 영상을 보고 칭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뿌듯했습니다. 2분정도의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CLP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ภาพของ
เพื่อนใหม่



Town Center

- Painting
- Korean Class





Painting



Town center에 있는 낡은 의자와 테이블 및 외벽, 교실벽을 새로 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3개의 교실을 페인트 칠하기로 했는데, 각 교실을 한국, 미국, 홍콩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페인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처음 해보는 페인트 칠이라 긴장도 했지만 잘해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열심히 했습니다. 엘빈, 피뵐, 벨, 피라, 타운센터 스텝분들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5번 정도 방문해서 작업을 하는 동안 현지 스텝분들과 우리의 작업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느꼈고, 즐겁게 일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4명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팀원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4명이 같이 맞춰나가는 방법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수업

치앙라이에서도 산캠핑과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곳 치앙라이에서는 주로 한국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YMCA 주말 랭귀지 스쿨 뿐 아니라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있는
특수학교 그리고 speech camp 이렇게 총 3곳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은 간단한 인사말과 감정표현을 주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몸짓과 연기등의 동작위주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이해도 높이고 즐겁게 수업을 했습니다.

Day camp 선생님인 피벤이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었고,
피벤의 수업진행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2nd ASIA-PACIFIC WATER SUMMIT

May





2nd ASIA-PACIFIC
WATER SUMMIT
14 - 20 MAY
CHANG MAI
THAILAND 2013

2nd Asia-Pacific-Water Forum

ASEAN+3 국가들이 모여
물이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논의하는 회의

YMCA가 주관하는 Youth water Camp에
Uni Y 친구들, 관련 전공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라운아띠도 STAFF로 참여.

Camp에는 각 중고등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모여 물과 관련된 주제를 배우고 토론하는 캠프.

치앙라이에서의 한 달을 마무리 하고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치앙마이에서 열린 2nd Asia-pacific water forum에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일간의 일정 동안 물에 대한 강의도 듣고
직접 밖에 나가서 수질 체크 등의 야외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물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Water Forum에 참가하다

치앙라이에서 한 달을 바쁘게 보내고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한 채, Water forum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Water forum에 대한 정보를 많이 조사하지 못하고 워터 포럼에 참가되었는데,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가 모여 큰 컨벤션 센터에서 전시와 함께 회의, 미팅등을 진행하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맡은 일은 Water forum 중에서 Youth Water camp의 Staff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Uni Y,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50명 되는 중고등학생들을 인솔하고, 캠프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체험 물의 현장

회의장이 아닌 직접 밖으로 나가 물과 관련 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수질 체크를 하기 위해 여러 장소(매남 땡, 매카 수로, 폭포 등)를 방문하였습니다. 책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더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에 대한 강의 및 토론

물을 어떻게 하면 덜 오염시킬 수 있을까?
쓰나미, 가뭄, 홍수 등
물과 관련된 재해를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등의 주제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연극을 준비하여
워터 포럼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아끼고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현지 STAFF과의 중간 발표

워터 포럼이 끝나고 태국 산캠프 식구들에게 2달간 살아온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일정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이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캠프 식구들이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들어주시고 즐거워 해주셔서 보고서를 준비했던 한 달간의 힘들었던 노력과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HEALING TIME!!

한국에 다녀오신 피프레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해주신 불고기와 김치 만찬!
보고서 준비동안 힘들었던 피로들이 한 순간에 사라졌던
맛있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





June~July

Live in PHRAE



Nam's family



Doi's family



Pla's family



Kung's family



Work in SCHOOL

WELCOME
Kaon Atti 9, KB bank, YMCA Korea, YMCA Sankhampaeng
To: Bankardprachanukroh School, SESAO 37 Phrae, Thailand
7th June 2013



A large stone sign for Bankardprachanukroh School. The sign is grey and has gold lettering. At the top center is a gold emblem of a bird. The text is in Thai, English, and Thai again. In the background, there are green trees and two flags: a yellow one and a Thai national flag.

โรงเรียนบ้านกาตประชานุกโรห์

BANKARDPRACHANUKROH SCHOOL

อำเภอสูงเม่น

จังหวัดแพร่

Bankardprachanukroh school (secondary school)

18명의 선생님과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160명의 학생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바라신 점

English Class

- 매일 두 시간 이상씩 영어수업에 참여해 선생님을 보조하거나 이끌어نا감
-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하기

Korean Class

- 아침과 점심 조회시간에 10분씩
- 짧은 단어나 문장

Decorate Classroom

- 교실 꾸미기

English class

How do you like the room?
I don't like it.
Why do you like the room?



English
Class

- 매일 두 시간 이상씩 영어수업에 참여해 선생님을 보조하거나 이끌어نا감
-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하기

이 곳의 학생들은 외국인을 접한 적이 없기에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에게 학생들과 영어로 많이 대화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영어수업에 참여해 수업을 보조하거나 이끌어나갔습니다.

6월, 우리는 선생님이 바라실 때에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7월, 팀원들간의 회의를 통해

최소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영어수업에 참여하고 때로는 선생님을 대신해 영어수업을 이끌어나가기로 했습니다.



KOREAN	Thai	ENGLISH
예쁘다 (예뻐요)	สวย	Beautiful
멋있다 (멋있어요)	หล่อ	Handsom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ขอบคุณ โก๋ / โก๋อิ๊ว	Thanks

Korean class



Korean
Class

- 아침과 점심 조회시간에 10분씩
- 짧은 단어나 문장

한국어와 영어, 태국어로
기본적인 단어, 문장, 인사말, 간단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7월이 되기 전, 팀원과의 회의를 통해
주제를 만들고 일주일에 3번은 노래를,
2번은 회화를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새로운 내용을,
점심에는 복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Decorate classroom




Decorate
classroom

- 교실 꾸미기

처음에 선생님께서 영어교실 벽을 페인트칠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먼저, 도안을 만들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팀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페인팅을 시작했습니다.

페인트칠을 하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에 교실로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쉽게 끝낼 수 있었고, 아이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단어카드를 만들고 복도를 칠했습니다.



Before paint the wall at room of P'maeo



ENGLISH

WORLD

WE ARE ASIANS

LEARN
and
PLAY



ENGLISH

WORLD

WE ARE ASIANS



ENGLISH WORLD

WE ARE ASIANS



After



paint the wall at room of P'somkid

English
Class

학교 정규 영어 수업 보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태국어가 유창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많다.

Korean
Class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직접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흥미로워 했으나 시간이 갈 수록 비슷한 교육 방식 덕분에 관심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다.

Cleaning
environment

우리가 처음 학교로 왔을 때 선생님께서 방을 꾸며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느라 챙기지 못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 하지만 방을 학생들과 즐겁게 꾸며서 재미있고 보람찬 일이었다.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는 선생님과 친구의 역할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 스케줄을 따라가느라 6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은 주어진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하기로 계획을 했었다.

프레에 있는 2달 전에 우리는 3달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경험과 배움들을 프레에 있는 2달 동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프레에 있는 생활이 끝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

Raonatti Do our own thinking



중간평가때,
우리는 태국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가 직접 실천하거나 우리가 했던 일들은 없
는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그래서 프레아띠. 350PPM 캠페인, 분리수거 환경 정
착 활동을 기획해 보았다.

프레 아띠

350ppm

분리수거
환경 정착

Phrae-Atti

4월, 치앙라이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우리는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들은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모금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깃 학교 학생들과 프레아띠라는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모금활동을
지속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집 포스터를 붙이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우리의 계획을 말하고 실행하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책임의식으로 우리는 제대로
계획을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이 프로젝트는
중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350PPM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분리수거 활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50ppm

'지구를 살리자' 는 라온아띠의 메인
활동이자 캠페인

'환경의 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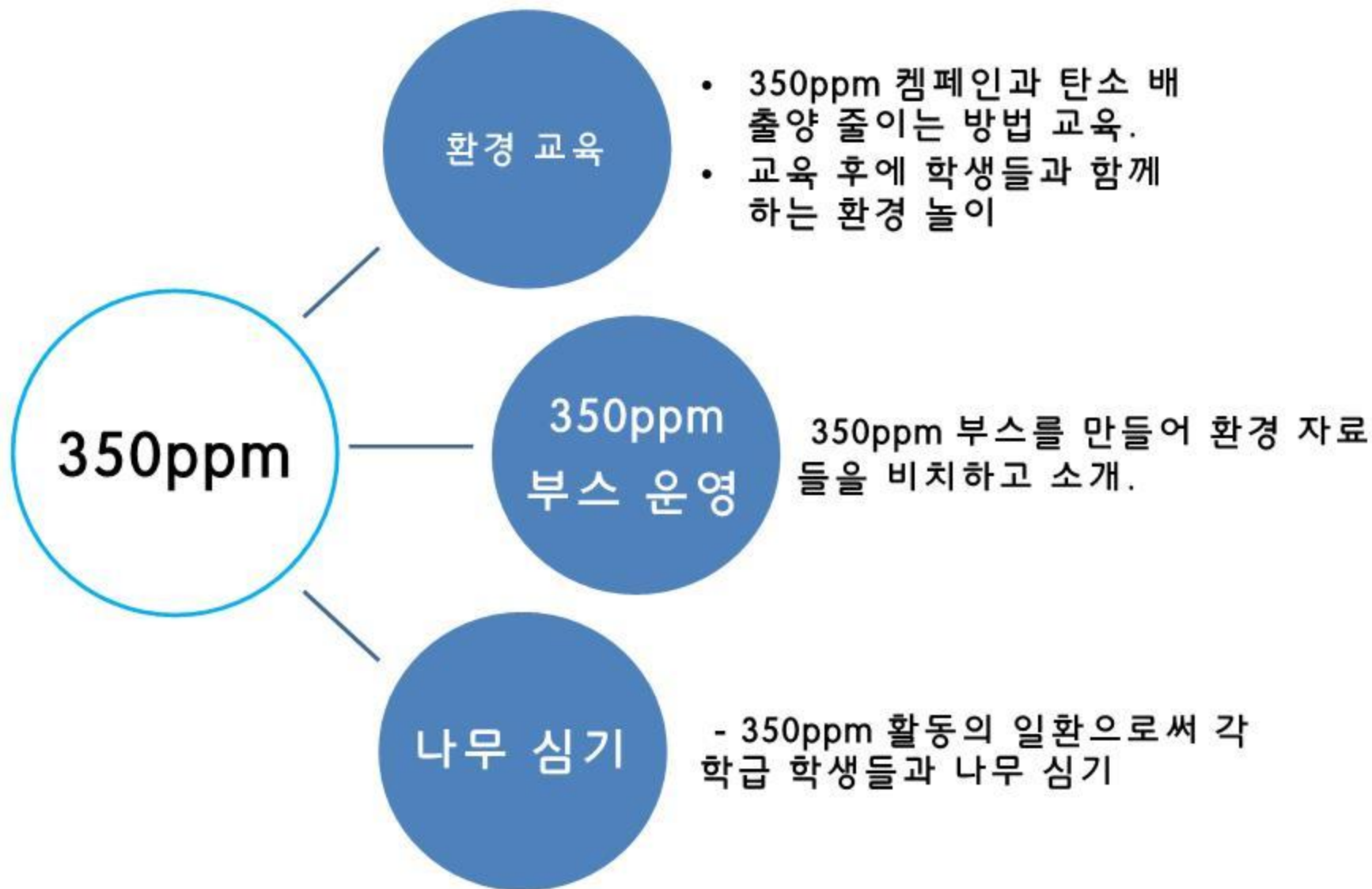
우리의 계획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설명

350ppm 캠페인 및 분리수거 교육 & 나무 심기

분리수거 함 구입 및 비치 & 각 학급 학생들과 나무 심기

지속적인 활동

350ppm 부스 운영 및 또다른 교육 활동



우리는 학교의 협조를 통해서 한 학급당 한 시간씩 환경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분은 350ppm 캠페인 소개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 했고, 끝난 뒤 학생들과 함께 수업 이해를 돕는 게임(지구 사랑 기차, 3-5-0, 분리수거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도 우리에게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환경 주간 동안 우리는 350ppm 부스를 만들어 350ppm과 분리수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판넬을 만들어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넬을 본 학생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으로 '약속의 손'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학교 스케줄이 변경되어 생각하는 것 만큼 환경 주간이 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환경 주간이 잘 운영되지 않고 7월이 되자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350ppm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50ppm 부스 이외에도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활동을 알리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여유 시간이 있는 점심시간에 쓰레기 통을 뒤집어 쓰고 분리수거를 하고, 판넬을 들고 설명을 하는 등의 점심 액션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점심액션활동의 하나로 아이들과 함께
재활용 우유팩으로 만든 350!!!.

나무 심기

350ppm활동의 하나로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무는 충분히 준비되었고, 아이들도 모두 함께 활동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예상밖으로 학교에 나무를 심을 공간이 부족해서 결국 6학년 아이들만 함께 총 24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분리수거

350ppm 캠페인과 관련해서 여러 활동들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활동 중에서도,
환경주간이 끝난 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분리수거
를 저희의 메인 활동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해 줄 수 있는 패널과 분리수거 통
4set를 준비해서 학교에 비치하였습니다.

Milk Box

But

We have to pressed
and clean Milk Box

Milk Box
กล่องนม

Plastic Bottle
ขวดพลาสติก
Glass
แก้ว
Can
กระป๋อง

Paper
กระดาษ



Normal

(Fruit skin, Food waste...)

เปลือกผลไม้, เศษอาหาร...

Plastic Bottle

ขวดพลาสติก

Glass แก้ว

Can กระป๋อง

Plastic Bag
Lunch Box

ถุงพลาสติก
กล่องโฟม

Paper

กระดาษ

M

ก

저희는 주 대상을 선생님들과 학생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에게 저희의 목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을 위한

우리의 목표

학생들을 위한

350ppm 교육이 끝이 났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학생들의 분리수거가 잘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350ppm이나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방과 후 분리수거 활동과
두번째는 점심시간 액션활동 입니다.

분리수거는
해야 되는겨!!!



선생님을 위한

이전에는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목표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없이 단순히 도움만 청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논의없이 진행한 활동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 힘들고 서로 이해하기에 어려웠습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끼리 논의를 한 후에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와 그에 따른 활동들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350ppm이란?? 분리수거를 위한 계획이란?

우리의 목표

최종적으로, 우리가 분리수거한 물품들을 팔아서 이 것들도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 활동을 분리수거로 정하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어가다가, 프레아띠를 분리수거를 위한 활동단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실 우리 활동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몇몇의 학생들만이 방과후 분리수거 활동에 참여했고, 가끔은 아무도
없어서 우리끼리만 분리수거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활동을 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활동을 해주었으면 싶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지속 가능성" 이 참 힘들구나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입니다.

환경교육

우리가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알려준 수업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환경주간이 끝난 후에, 저희 스스로 너무 저희 방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좀더 밖으로 나가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부스와 패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350ppm 부스

그러나 잦은 스케줄 변경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350ppm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획을 바꾸어서 점심액션활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점심액션활동이란 매 점심시간마다 우리가 아이들을 찾아가서 캠페인과 분리수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50ppm캠페인의 활동의 일부로써, 저희는 학교에 도움도 되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분리수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주 활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 우리가 먼저 나서서 분리수거를 한다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학교에 비치해 놓은 분리수거 통을 돌면서 분리수거 활동을 했습니다.

분리수거

처음의 계획은 우리를 도와 분리수거 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주축으로 분리수거 활동단을 만들고, 그런 다음 우리가 분리수거를 통해 모은 재활용품들을 팔아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돈은 학교나 학생들을 위한 돈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학생들만이 저희를 도와주었고,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우리의 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비록 우리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해야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고, 선생님들 또한 분리수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학교에 분리수거를 시작할 수 있는 싹을 피워놓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구나...

늘상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것 저것들을 생각하고 고려하는게 결코 쉽지않은 많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할 것들을 찾아서 해야한다는 부분이 어려웠고, 그 활동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 또한 가볍지는 않았습니니다.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2달간의 시간은 뭔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짧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 두 달간 걱정과 부담감 속에서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Raonatti Live in Thailand



Raonatti 9th Thailand team

Doi's story

앞으로 5일이면 이곳 태국에서의 5개월이 마무리 됩니다.

벌써 8월이라니..언제나 처럼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요 몇일 휴가 기간 동안 일기도 쓰고 마지막 보고서도 준비하면서 이곳에서의 5개월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했던 사진들을 보고, 함께 했던 일들을 떠올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휴학을 한 이유는 아직 저 스스로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서 입니다. 아직도 마냥 아이같은 부분이 너무도 많아서, 어른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휴학을 결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라온아띠로서 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난 지금의 저를 살펴보면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김동훈이란 사람 위에 한국어와 영어보다는 태국어가 먼저 떠오르고, 망콧을 좋아하고, 카우니여우를 좋아하고, 손으로 밥을 먹는게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태국사람 Doi가 떠오릅니다.

Doi로 살아가면서 저는 함께 살아가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그리고 태국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저를 비워내고 그 안에 이 사람들을 들어온 것 같습니다.그러면서 다르다는 게 뭔지, 가족이란 게 뭔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한국에서 느낄수 없었던 여유로움을 느꼈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꼈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그저 흘러가는 대로만 지내왔고, 늘 일상속에서 씩없이 달려오기만 했던 저에게 이곳에서의 삶이 아마도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la's story

6월 31일 수요일

어제,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처음 내가 태국에 왔을때의 사진을 보았다.

그때와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달라 사진을 보면서 느낌이 이상했고, 시간이 참 빠르다고 생각했다. 5개월동안 종종 "진짜 길다, 언제 끝나나?"라는 생각과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으나 이미, 그리고 거의 그 5개월이 끝났다.

5개월동안 우리가 태국에서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받은 것 같다.

태국에 도착한 이후로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느낀다. 진짜로.

태국에서 사람을 만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즐기며 웃고, 다음에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채 서로에게 안녕을 말하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친구를 떠날 때 슬픈 감정과 그리운 감정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5개월동안 좋은 친구를 만나고, 많은 좋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보았다.

또한 이 시간은 나에게 대해 더 생각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 자신 스스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뭐가 바뀌었어? 너 똑같은데!"라고 말할수도 있으나, 나 스스로는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너 한국으로 돌아가도, 그 변화를 계속하길 바래! 은지야!

라온아피가 아니었으면 좋은 사람도, 경험도 하지 못했을거라 생각하기에 정말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5개월은 길지 않지만 내 생각과 행동을 조금이나마 바꾸고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Kung's story

5개월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태국은 저에게 있어 다른 나라가 아닌,
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 곳은 너희집이라며,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시던 것들을 떠올릴때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미운정 고운정 든 팀원들 또한, 항상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힘들때도 지칠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서로 북돋아주기도하고, 응원해주기도하며 잘 지내와서 저에게 참 든든함을 안겨주기도, 때로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산다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시간같습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5개월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터닝포인트였어요.

여지껏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해주었고,

고민이란 것도 더 안겨주었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이 5개월을 제 인생에 있어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제일 큰 고민이자 미션이겠지만..
그래도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보냅니다.

Nam's story

5개월 동안 태국에 살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라온아띠가 뭐야?' 라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해외봉사단이야 라고 단순하게 말해버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고민이 많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항상 드는 생각 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라온아띠는 '고민의 씨앗' 인 것 같다. 한국에서 태어나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는가?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겪으면서 비교해보고, 내부적으로는 팀원들과 5개월 동안 느슨한 형태의 가족으로 살아봄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서로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쉽지만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A group of school children are walking away from the camera on a paved path. In the foreground, a girl in a white shirt and dark skirt carries a large black bag. Next to her are two boys in khaki uniforms with pink collars. To their right is a girl in a blue dress also carrying a black bag. Further ahead, a boy in a red shirt and another person in a dark shirt are visible. The path is lined with lush green trees and bushes. The text "See you again:-)!" is overlaid at the bottom of the image.

See you again:-)!